

해안지역 DEM 의 비교연구

김승범, 박원규, 이해연, 김탁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042-869-8629 sbkim@satrec.kaist.ac.kr

경기만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지역 표고자료들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제작한 DTED (Digital Terrain Elevation Model)는 70-80 년대에 제작되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약 50 km 의 해안선 위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며, 반도가 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PCI 는 수십 km^2 에 해당하는 바다를 육지로 생성하였고 해안지역의 표고오차역시 60 m 를 초과한다. 지형도를 독취한 수치지도는 지형도 갱신 (10 년), 독취에 필요한 시간 ($15\text{km} \times 20\text{km}$ 에 작업시간만 24 일)과 비용, 수동 독취 상의 오차, 측량 난이 지역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Valadd-pro 는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고 해안지역의 표고역시 PCI 보다 현실적이다. 경기도 시화호 주변의 4 km^2 지역의 등고선은 현지 지형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1. 서론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와 홍수에 의한 피해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열팽창과 그린랜드, 남극, Alpine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은 2100 년까지 약 1-3 m 로 컴퓨터 모델 결과는 예측하고 있다 (Gornitz (1995)의 summary 논문 참조). 이러한 모델 결과는 지난 2 세기동안 실측된 전지구적 해수면 수위가 평균 $1\text{-}2 \text{ mm yr}^{-1}$ 상승했다는 사실의 원인이 인간의 산업활동에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추가적 상승과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홍수의 경우 최근 들어 비이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1995 년 북한서부, 1996 년 임진강유역, 1998 년 지리산, 1999 년 임진강 유역)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1999 년의 중국 양자강, 미국 캘리포니아). El Nino 와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들로 지목되고 있다(태풍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실측통계와 컴퓨터 모델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Henderson-Sellers *et al.* (1998) 의 summary paper 참조). 요컨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홍수도 그 빈도/정도가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해수면 상승과 홍수와 같은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자료가 해안지역과 강 유역의 표고자료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이다. 예를 들어 함학진과 안상진 (1999)은 DEM 이 배수조직 (高地의 물이 低地로 集水되는 망의 구조), 흐름과정,

유역의 경계추출, 흐름누적 (集水되는 물의 양)등의 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함학진과 안상진은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DEM을 사용하였으나 이 DEM의 정확도에 대한 고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DEM의 정확도에 따라 수문정보의 신뢰도가 결정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DEM 자료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 NIMA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의 DTED (Digital Terrain Elevation Model), 상용 software인 PCI로 SPOT 영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DEM,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개발한 software Valadd-pro이다. 대상지역은 경기만 일대이며 안산시 시화만 지역을 정밀 비교하였다.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지형도 역시 사용하였으나 경기만 일대의 자료가 없었던 관계로 충남 당진 지역의 강 유역을 선택하였다.

2. 자료

DTED (Digital Terrain Elevation Model): 사용한 DTED 자료는 Level 1으로 수평해상도 3 arcsec (100m)자료이며 표고 layer만을 사용하였다. NIMA에서 제공하는 nominal accuracy는 수평방향으로 50 m 이내이고 수직방향으로 30 m 이내이다.

PCI DEM: PCI Works v. 6.2 (1997)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위성영상은 SPOT이고 스테레오 영상은 1999년 5월과 1998년 8월에 촬영되었다. 영상의 세부적 내용은 Lee *et al.* (2000a)를 참조한다.

Valadd-pro DEM: Valadd-pro는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개발한 software로 SPOT 영상을 사용하여 DEM, 정사영상, 정밀보정영상을 생성한다 (Lee *et al.* (2000a); Lee *et al.* (2000b)). PCI에 사용한 동일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수치지도: 1:25,000 지형도의 raster화는 1) 등고선 원판입수 2) drum scanner로 scan 3) MicroStation을 사용하여 등고선을 vector 형태로 독취 4) 독취된 등고선을 raster 표고값으로 변환의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3. 해안지역, 강유역 표고자료 비교

그림 1은 DTED와 Valadd-pro의 해안선을 비교한다. DTED의 경우 경기도 화성군이 半島로 표시되고 인천북부 김포군이 육지가 아닌 群島로 나타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Valadd-pro는 해안선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시화방조제와 인천 부두 역시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DTED에 존재하는 일반적 문제는 해안선이 육지쪽으로 약 50 km 가량 편향되어 있다는 점과 최근에 발생한 변동사항 (시화방조제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용소프트웨어로 생성한 해안지역 DEM을 (그림 2 b) 살펴보면 첫째 연안의 상당부분이 육지로 메워져 있다. 이는 PCI가 pyramid 방식의 정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해안지역으로 정확히 생성된 지역에서도 육지에서의 오차 (60 m 이하)보다는 큰 오차 (60 m 초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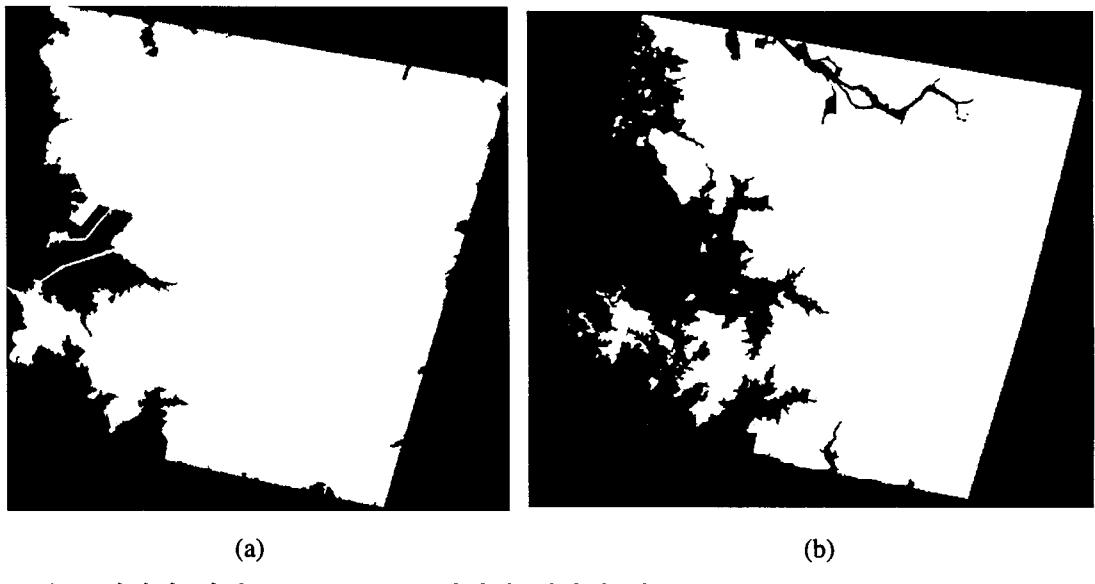


그림 1 경기만 일대 $60\text{ km} \times 60\text{ km}$ 지역의 해안선 비교: (a) Valadd-pro (b) DTED. 해발 0m 이상인 지역을 흰색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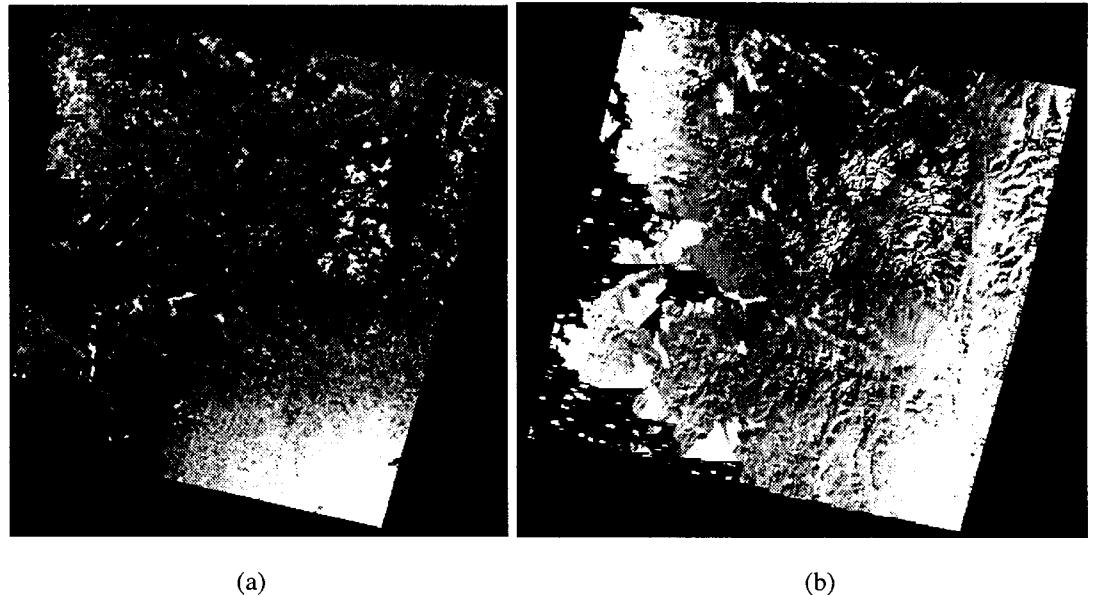


그림 2 경기만 일대의 해안선 비교: (a) Valadd-pro (b) PCI. DTED 와 차이의 절대값을 60 m로 scaling.

다음으로 수치지도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와 DTED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 비교 지역은 강 유역으로 (그림 3의 A, B, C 지역) 30 m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이는 1:25,000 도엽과 비교한 결과 독취과정의 오차로 판명되었다. 수치지도는 PCI나 Valadd-pro 보다 정확하리라 예상되나 갱신주기가 약 10년이고 고비용인

점이 실용화의 장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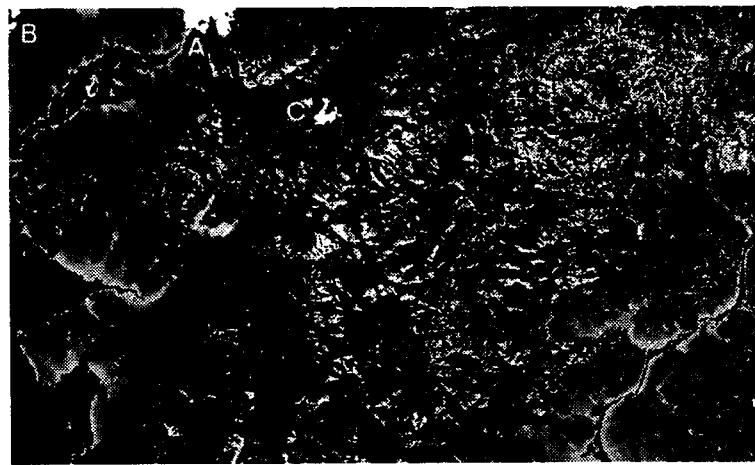


그림 3 당진지역 $30\text{ km} \times 40\text{ km}$ 에 대한 1:25,000 수치지도 minus DTED. 차이값은 30 m로 scaling 됨. A, B, C 지역은 지형도 등고선의 raster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그림 4의 Valadd-Pro로 제작한 등고선은 한국해양연구소 일대의 지형을 현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Valadd-pro 가 $60\text{ km} \times 60\text{ km}$ 지역의 DEM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20분내외)은 지형도의 갱신주기 10년과 수치지도화를 위해 수동 독취에 소요되는 약 24일(1:25,000 지형도 8장)과 비교할 때 막대한 시간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DTED 기준으로 산정된 정확도가 RMS 22m로 PCI(38m)보다 2배, Intergraph(50m, Lee et al. (2000a))보다 2.5배가 우수한 점 역시 장점이다.

4.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DTED는 70-80년대에 제작된 DTED 이지만 DTED는 계속 갱신되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DTED의 정확한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DTED의 생성방식이 Valadd-pro나 PCI와 같은 자동생성인지의 여부를 밝힌 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Valadd-pro의 주관심사는 $60\text{ km} \times 60\text{ km}$ 의 광범위한 지역이었으므로 수 km의 범위를 가진 해안지역에 대한 정밀작업은 아직까지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강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았고(그림 1 a) 해안선 부근의 표고에 대한 정량적 정확도 검증과 해안선 지역의 정표고를 얻기 위해 사용한 geoid의 정확도 검증 등이 향후과제로 남아있다.

5. 결론

해안지역과 강 유역의 정확한 표고자료는 재해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침수지역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형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현재 사용 가능한 표고자료 (DEM)를 열거하고 이들의 정확도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미국에서 제작한 DTED (Digital Terrain Elevation Model)는 70-80년대에 제작되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약 50 km의 해안선 위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며, 반도가 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PCI는 수십 km^2 에 해당하는 바다를 육지로 생성하였고 해안지역의 오차 역시 60 m를 초과한다. 지형도를 독취한 수치지도는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으나 제작 시간과 비용이 실용화의 큰 장애로 작용한다. Valadd-pro는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전자동으로 표고를 생성하며 해안선을 정확히 묘사하고 해안지역에서 PCI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Valadd-pro의 해안지역 결과에 대한 정량적 정확도 비교, 해안지역의 정밀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최신 DTED를 입수하여 정확도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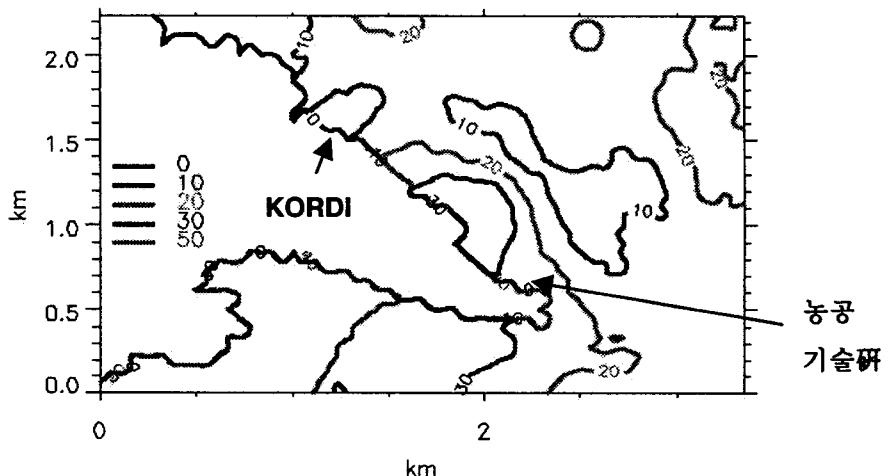


그림 4 Valadd-Pro를 사용하여 제작한 10m 간격의 등고선. 좌측의 등고선이 없는 지역은 바다이며 서남단의 육지는 가파른 언덕으로 등고선이 겹쳐 나타난다.

감사의 말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수신처리 시스템 개발과제 (NN33510)’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함학진, 안상진, 1999: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수문정보추출, 한국수자원학회지, 32, 41-45.
 Gornitz, V., 1995: Sea-level rise: a review of recent past and near-future trends., *Earth surface process and landforms*, 20, 7-20.
 Henderson-Sellers, A., H. Zhang, G. Berz, K. Emanuel, W. Gray, C. Landsea, G. Holland, J. Lighthill,

- S.-L. Shieh, P. Webster, and K. McGuffie, 1998: Tropical cyclones and global climate change: a post-IPCC assessment, *Bull. Amer. Meteorol. Soc.*, 79, 19-38.
- Lee, H.Y., T. Kim, W. Park, and H.K. Lee, 2000a: Accurate Extraction of Digital Elevation Models from Satellite Stereo Images: Stereo Matching based on Epipolarity and Scene Geometry,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submitted.
- Lee, H.Y., W. Park, S.A.B. Kim, T. Kim, T.H. Yoon, D.S. Shin, and H.K. Lee, 2000b: Development of Value-Added Product Generation Software from Satellite Imagery: "Valadd-Pro", *J. Korean Soc. Remote Sensing*, in press.